



2022. 11. 23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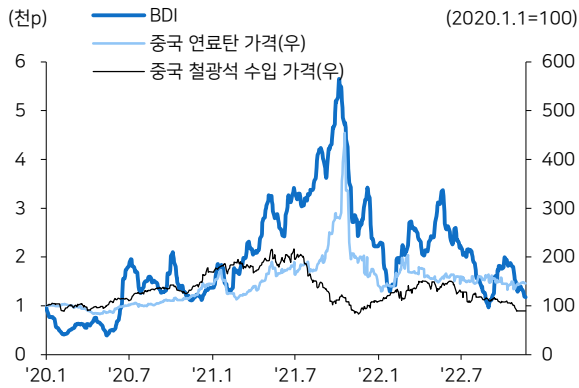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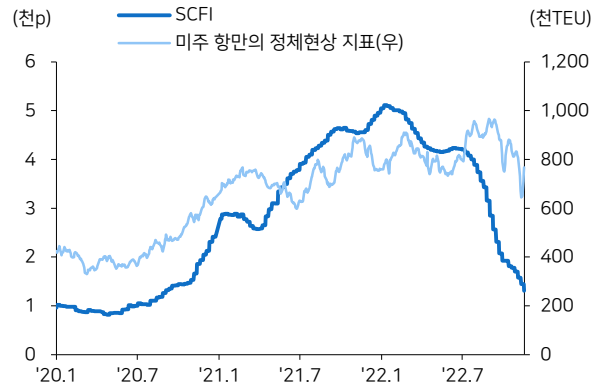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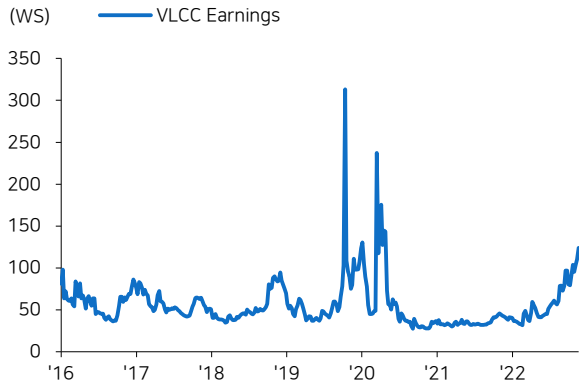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149.0p(-2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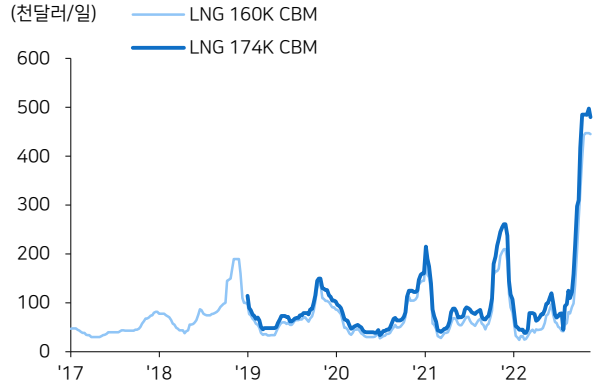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06.8p(-136.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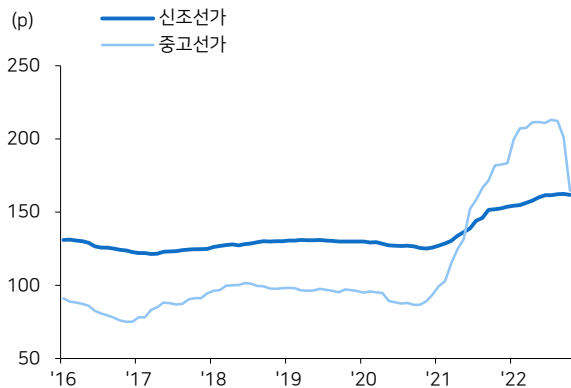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124.0p(+13.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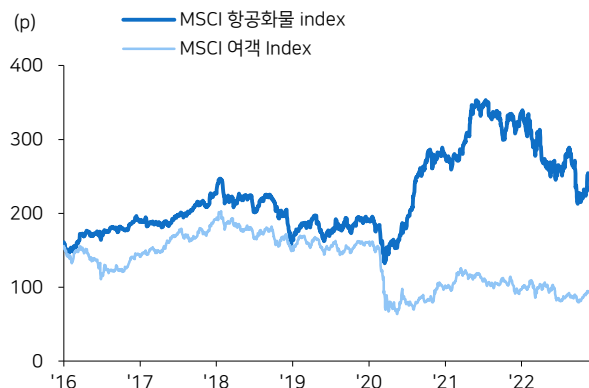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45.3p(-2.3p WoW)
480.0p(-1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64.6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50.7p(-0.5p DoD)
93.4p(-0.6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sakos Energy Navigation linked to double suezmax shuttle tanker order at Samsung Heavy

삼성중공업이 셔틀탱커 2척을 척당 1.275억달러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5년 상반기 인도 예정임. 선주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선주는 Tsakos Energy Navigation(TEN)이고, 160,000DWT급 선박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짐. (Tradewinds)

"지금이 매각 적기"...HMM 민영화 시동 건 산은

산업은행이 HMM 지분 매각에 나섰다고 보도됨. 물류기업 판토스를 보유한 범(汎)LG 계열 LX그룹과 경영권 매각을 위해 사전 접촉했고, 현대글로벌비스, 포스코, CJ그룹 등과도 접촉했거나 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관계자는 산은과 LX 측은 실무팀을 꾸려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함. 산은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려는 방침인데, 한 회사에 모두 팔지, 2~3개 회사에 쪼개 팔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G7-EU, 23일 러 유가 상한 합의 전망" WSJ...배럴당 60달러 유력

주요 7개국과 EU가 러시아 유가 상한선 책정에 합의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상한선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12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짐. 지금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경우에 따라 배럴당 70달러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됨. 러시아 유가 상한선은 러시아가 고유가 덕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현대중공업 3사 노조 내달 6일 첫 공동파업 돌입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6일 4시간 공동 파업에 나선다고 보도됨. 조선 3사 노조가 같은 날 함께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7일 7시간 순환 파업을 벌이고,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안전운임 품목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보도됨. 2022년 6월 이후 5개월여만의 파업임. 화물연대는 22일 기자회견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함. 안전운임제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임. (연합뉴스)

Angola's state oil company eyes FLNG in imminent talks

앙골라의 국영 석유 기업이 FLNG 도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앙골라 가스는 국가소유로 그간 개발대상 가스전에서 제외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새로운 법령이 통과되며 석유기업들이 가스전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짐.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